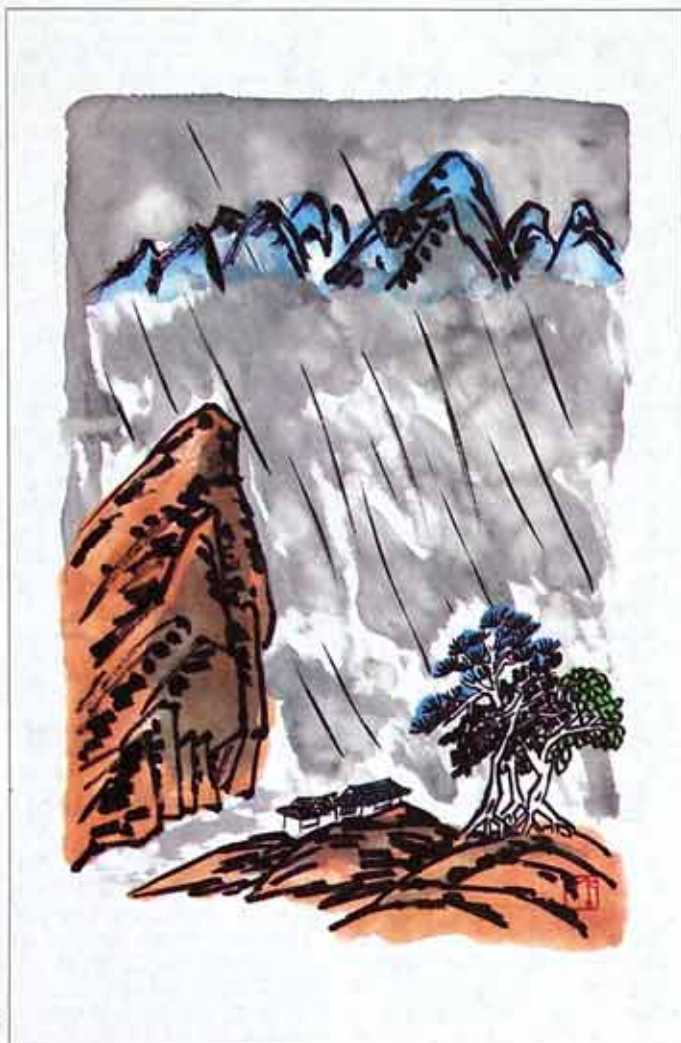


고은 불교대학 소설

줄장마 한달



해까지 그런 침묵의 대상이었던가. 그런데 그는 피루상이 얼굴을 조심스럽게 뒤어내자 제 모습으로 돌아온채 살아 있었다. 그의 앞에 의하면 효영 명오가 죽은 것은 파도다미에 휩쓸려 바위바다에 내동댕이쳐졌기 때문이었다.

대해와 두 사람은 밤 취침시간 직전에 좌상을 함께 마치고 방안에서 경행(經行)하다가 바람이 거세어진 바람이 어둠 속으로 나가 가슴 깊이 그 어둠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방안에 갇혀있었던 상태의 심신을 활짝 풀어놓았다.

그들의 꿈은 오후불식이었으므로 비어 있었다. 그런 빈 몸인지라 바다 한복판에서 힘껏 달려온 밤의 거센 파도소리의 한 기운이 들어와서 상해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마음을 놓았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파도의 끝자락 가까이 다가갔다. 언제나 파도는 거기까지

꺼리고 곁질들 쫓아주는 탁(啄)을 말한다. 옛 선방의 책 (벽암록(碧巖錄)) 16쪽 (明) 공안에는 "... 학인은 줄하고 스승은 탁하도다"라 하였다. 이것은 화두의 하나이다.

그러나 효영은 대해가 어미답이고 명오가 병아리이거나 거꾸로 명오가 어미답이고 바다의 잠부 대해가 병아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압눌림을 그 민두고 그들의 방으로 들어가지는 뜻이었다.

그때였다. 어둠의 지점에서 실로 엄청난 높이의 커다란 파도다미가 떨어져 그들 세 사람을 동방 휩쓸어 바위바다에 내리쳐던 것이었다.

세 사람은 그 파도자락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다가 바위의 모서리에 심하게 부딪쳐 거기에 남겨졌다. 그 가운데서 대해만이 바위에 다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재장신 없이 가어올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예상과 달리 효영과 명오는 바로 송장이 되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도 생사에 대한 생각이 어린 시절부터 깊었던 효영이 아니던가. 나이가 들수록 생사나 우주에 관한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은 무역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그런 효영의 영향을 받아 그외의 우경 가운데서 이 세상의 철리(哲理)를 깨쳐려고 갖은 고행과 난행도 마다하지 않았던 명오가 효영일행 가운데서 가장 열렬한 수행자로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무욕도의 밤에 그 어둠 속의 파도다미를 만나 생사에 대한 공부에 이승에서는 마감한 바였다.

다음날 대해의 의식이 회복되어서야 간밤의 참사가 밝혀졌다. 인담은 마치 그의 몸 속에 어떤 감정도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겨울 늑대가 익숙한 솜씨로 새끼를 꼬아가는듯이 효영 명오를 잠사지내는



방정맞게 튀어나온 말이었던가를 그 말이 적중된 뒤의 시간이 지나서야 아픈 데가 났다. 새로 아픈 것처럼 떠올랐다.

한참 잠잠이 되려고 이제껏 공부했던 말인가 하는 그런 자책까지 일어나는 것이었다. 아니 그녀는 잠잠이기에 앞서 지야차(地夜叉) 노릇을 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차라리 천야차 허공야차는 날개가 달려 하늘과 허공을 날아다니며 악귀노릇이나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텅빈 듯한 무욕도의 하루하루는 운문스님의 '倒一說' 그대로였다

그 처연한 적막 그것을 뜻하는 것 같았다. "만약 살법을 듣는 사람도 없고 살법할 때와 장소도 없었다면 부처님은 어찌셨을 까요?"라는 제자의 질문에 대한 운문(雲門)의 죽답이 그것이거나 그런 죽답이 아닌 하나의 현상이 되어 무욕도의 남은 사람들이 보는데 하루하루였다.

아무도 말하는 일과 상관없이 또 하루 하루가 바로 그들이 도달한 경지이기도 하단 말인가.

영 평오를 바다의 고기들에게 넘긴 뒤 그들은 인담의 뜻에 따라 7일째의 열불 따위도 걸러서 49일이 되는 날인데 그날부터 줄곧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 비는 하루 이틀로 그칠 비가 아니었다. 때 아닌 장마였다.

처음 며칠이 오렸만에 내리는 비였으므로 섬의 참을한 기운을 꼭 적셔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비가 1주일을 넘기게 되어도 그칠 생각 없이 하늘의 몇 군데가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줄줄 새는 듯이 내리는 판이 계속되자 섬의 사람들도 떠나없이 견디기 힘든 것으로 되어갔다.

사후선이 떠난 뒤 충청도 바닷가의 한 군데인 마량진(馬梁鎭) 언저리에 영국 군함이 새록새록 커다란 돛을 올려 나타나자 그 바닷가 일대의 백성이나 벼슬아치

드디어 무너가 습기 때문이었는지 몸져 누워야 하였다. 이렇다는 병명도 몰랐다.

웬만한 병이냐 인담의 진맥이나 소박한 의술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이번의 무너는 첫째 진맥에도 나타나는 것이 없었다. 첫째 그녀는 하루에 먹는 두 끼의 공양도 거르는 일이 잦았다.

두 끼니라고 해 아침의 죽과 점심의 잠곡밥일 따름이었다.

그나마 다량인 것은 승승을 마시는 일로 그런 두 끼니를 대신하는 것이었다.

이런 우울한 도량이라 해서 하늘이나 땅이 생각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장마는 견딜줄 몰랐다. 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맑은 바람 충실히 하는 것처럼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이런 판이와 때때로 띄워 육지로 건너 가야할 일도 삼가고 있었다. 아직 양식이 나 그밖의 것들이 동이 난 것은 아니어서 한달쯤은 지낼 수 있었지만 거의 한달에 한두번씩 건너다님으로써 섬의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바깥소식 따위가 건너오는 일이 이곳의 승통이기도 해왔는데 그런 승통이 끊어진 상태로 지루한 하루하루가 바에 젖어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판이에도 북쪽 한강 하류에서는 수적(水賊)이 출몰하면서 정미월의 세곡(稅穀)창고가 털리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홍경래난 이후 8도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그칠줄 모르는 장마비에 우녀가 몸져눅고...

말을 진행하고 있었다.

두 시신을 비록 여기저기 기운 것일망정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본 것으로 가라 입히기 전에 바닷물이 말라붙은 시신은 맑은 생물로 정성껏 씻어냈다.

문득 담담하던 인담의 두 눈에서 각각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시신 중의 하나인 그 조용하기 짝이 없는 일몰 위에 떨어졌다.

그는 이번 일을 누구와도 의논하는 일 없이 이 섬 안에서 그 자신만이 사는 것처럼 처리하였다. 그래서 효영 명오의 다비(荼毗)는 그들이 죽은 다음날 저녁때 간밤의 거센 파도가 가라앉은 동안에 그가 혼자 때때로 시신을 실어다 지면치 바다 가운데다 내버리고 돌아 오는 것으로 끝이었다.

우녀조차도 그런 인담에게 입을 열 겨를이 없어 인담의 뜻에 순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녀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지만 '이 섬 안의 두 송장' 운운한 말이 얼마나

나 나중에 나타난 군인들조차 겁이 나서 다 도망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도 무욕도에서는 통 모르고 있었다.

아니 조선 8도의 여기저기서 홍경래가 일으킨 그 무서운 난리 뒤에 그 난리에 뒤집혀라 도적과 무리배들의 일이 끊임 없이 끊이지 않고 그런 판에 영남의 홍수에 이어 이번에는 충청도 바닷가 일대에 큰 비가 내리는 중이었다.

저 남쪽바다 어디에 있다는 유구(遊球) 나라의 백사들이 표류되었다가 가까스로 구출되어 그 사람을 청나라로 보내는 일도 바로 이런 서해의 큰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

무욕도는 비의 섬이었다. 사람들도 비 자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들의 방도 습기가 그들먹하였다. 그들의 몸도 습기로 이루어져 4생(四生) 가운데 태생(胎生) 난생(卵生) 화생(化生)이 아닌 습생(濕生)이 기만 하였다.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본 전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경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경고관에서 하십시오.

- 생활동행 ● 개인법회
- 불교경전공부 ● 불교방송
- 지체호보 ● 신년
- 다량행사 ● 신상물소개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항, 염주 | 일체 품목 |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수입상가 구4호 전화: 778-5345, 팩스: 777-1917

5437306

피해성 관절염 전문

작골 신경통 (3회권)

張三洙 합장

7114370

경력 전문 사원모집

삼보에 귀의 하오며 함께 일하며 정진공부를 하실 도반을 모집합니다.

- 연령: 40세 이상 (정년퇴직자 및 명예자 환영)
- 대상: 남·여

연락처: 739-8074-5 나한귀합장

氣치료 (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말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障),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줌.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
- 불사후 이른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불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생동하는 불교

해동불교산악회 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산행하며 포교하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해동불교산악회 협정

사무국 (02)374-2254 375-2254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대불교신문사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포교원 안내

- ▶ 위치: 부산 온천동 최요지
- ▶ 명 수: 36명
- ▶ 보증금: 150만원, 월세 60만원
- ▶ 시설비: 비품대 가격절증가

연락처: (051)514-0331-2

간경화 · 정신질환

神病, 病名 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 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곤북면 하림리 보은암

사찰안내

- ▶ 위치: 장호원(발전요충지)
- ▶ 대 지: 437평 ▶ 빌딩: 27평
- ▶ 사무실: 15평 ▶ 요사채: 42평(방15개)
- ▶ 배치가: 3억4천(금에)
- ▶ 전 땅: 필당 150만 이상의 요충지 (부동산 사찰(적법상당))

☎ 0336643-9051 · 0331224-4995

포교당 안내

- ▶ 위치: 부천시 중동 신도시 입구
- ▶ 전 세: 3천3백만원
- ▶ 명 수: 25명

연락처: 032)656-7523

78의 심복화교고 하이얀 도회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활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이해할수있도록 책적인 불교그림동화(만화) '깨달음의 세계' (6백여 일) 및 단행본 부처님일대기, 가 재판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서적, 시, 수필, 강연)에 필요한 일인 출판물들을 펴내시면서 성심 성취할 기획 : 제작하여 드립니다.

문의: 02)932-6327, 937-5759

하얀책 TEL. (02)932-6327, 937-5759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우학님 스텝 . 시 . 소설

영남대학교 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중은인연 053)475-3707

직원모집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자 간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 ▶ 자격: 40세미만의 4년제 대학 졸업자
- ▶ 불교학통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불교신자

▶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직접발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처: 중구 신당3동 388-10
전화: 237-4438/9

재단법인 탄허불교문화재단